

정·어울림·해학·끈기... 우리문화의 얼굴들



‘한국인의 문화 유전자’ 주영하의 지음

‘정·흥·공동체·해학·끈기·빨리빨리·자연스러움·공작음·어울림·예의.’

올 해 주목할 한국인의 문화유전자다. 국학진흥원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설문조사를 거쳐 선정한 것들이다. 한 문화권 내에서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공통성 및 문화적 개성을 담고 습득·모방·변용되는 문화적 성질을 문화유전자로 정의한다면 이들 문화유전자는 우리 문화 전반에 깃든 근간이라는 예기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엮은 ‘한국인의 문화유전자’는 10대 한국 문화유전자에 대한 분석을 거쳐 한국인들의 문화적 전통과 개성을 되짚어보고 있다. 물론, 한국 문화에 배어있는 문화적 근원을 찾아봄으로써 미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국학진흥원이 기획한 ‘한국문화유전자총서’ 시리즈를 시작하는 첫 번째 책이기도 하다.

역사도, 사는 곳도, 문화도 다른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인의 정에 공감해 웃고 웃는가 하면, 한국 K팝 가수들의 노래와 몸짓을 따라하는 이유는 뭘까. 이들 대중 문화 외에 새로운 한류 가능성을 지닌 문화적 요소는 없는 걸까.

국학진흥원이 문화 유전자를 선정한 것도, 여기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작한 것도 이런 의도에서 시작됐다.

책은 10개의 문화 유전자를 ‘한국인, 자연에 기대어 더불어 살다’라는 생활 문화와 ‘한국인, 예를 알고 흥을 즐기다’라는 정신 문화 영역으로 나눠 풀어내고 있다. 공작음·정·자연스러움·공

동체·어울림은 생활 문화 쪽에, 해학·흥·예의·역동성·끈기는 정신문화 방면으로 분류했다.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분석에 파워 블로거의 생생한 체험이 곁들여져 문화의 참모습을 돌아본다.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예술학부 교수는 발효 음식에 대한 문화 유전자를 분석하면서 “가족과 이웃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져 천천히 익으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맛의 변화를 감내하게 하고 고향이라는 지역적 기반을 지니고 있다”면서 “식품학적 노력을 통해 문화적으로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송원찬 한양대 수행인문학부 교수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말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핵심 문화 코드이면서 한국과 한국인을 표현하는 대표적 정서인 ‘정’을 살펴본다. 그는 특히 “정이 약자에 대한 배려로 사용될 때, 나눔의 정신으로 계승될 때, 한국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왕따 치료제인 정, 자살예방제인 정의 가치를 사회 통합의 매개체로 발전시켜야 하고 사회 정책도 이러한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는 사이의 ‘강남스타일’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는 ‘흥’에 대한 해석도 새롭다.

이상민 가톨릭대 교수는 “한국 문화에서의 흥은 서양 문화에서처럼 이분법적 대립이 전복돼 한쪽이 주도권을 잡는 데서 유발되는 게 아니라 한데 뒤엉키고 섞여 이해하고 화해를 하는 데서 나온다”고 분석했다. K팝이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신나게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라는 게 이 교수 주장이다.

이외 강병호 배재대 한류문화산업대학원장의 ‘빨리빨리’ 미학에 대한 분석, 김기덕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의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의미, ‘어울림’과 ‘다문화’를 통한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의 문화 유전자 살펴기도 재미있게 읽힌다.

〈아모르문디·1만5000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장맛이 바뀌면 집안이 망할 정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을 담그는 일은 우리 문화에서 중요했다. 〈아모르문디 제공〉

애플 경영방식을 경계하라

‘애플 콤플렉스’

이병주 지음

애플의 혁신과 경영에 대해 칭찬 일색인 시기에 애플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책이 나왔다.

최근 들어 애플 제품에 혁신이 사라졌거나 경영진이 퇴사했다는 등 애플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병주 생명경영연구소장이 쓴 ‘애플 콤플렉스’는 단순히 비판 수준을 넘어 경영학적 근거를 들어 경영방식에 대해 비판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애플은 고도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고, 모든 조직이 CEO의 통제하에 있어 극도로 효율적인 구조로 돼있다. 이 같은 체제하에서 출시하는 제품마다 성공을 거둬 많은 기업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저자는 애플의 최대 강점이 위기를 부를 수 있음을 경계한다. 자칫 기업의 존폐가 결정될 정도의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디언·1만3800원〉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화제의 시집을 다시 만나다

‘문학과지성 시인선 R 1~4’

이성복 외 지음

2003년 출간된 뒤 절판된 이성복 시인의 ‘달의 이마에는 물결무늬 자국’, 1989년 첫 선을 보일 당시 ‘갑작스런 각오를 했다’던 유하의 ‘무림일기’, 2005년 출간 이후 화제를 낳았던 황병승의 ‘여장남자 시코쿠’, 광주 출신으로 김수영 문학상을 수상한 김경주의 2006년 작 ‘나는 이 세상에 없는 계절이다’ 등 서점에서 찾기 쉽지 않았던 시집이 ‘문학과지성 시인선 R’로 복간됐다. ‘R’은 ‘복간’(reissue)을 의미한다.



1부터 100까지 숫자를 달고 묶인 이성복의 시를 비롯해 쉽게 소비되는 대중예술을 성찰의 대상으로 삼아 시를 써온 유하의 풍자, ‘나의 진짜는 뒤통순가 봐요...나의 또다른 진짜는 향문이에요.’ 등 발칙한 시어들로 가득찬 황병승의 시, 연극·미술·영화의 문법을 넘나드는 다매체적 문법과 탈문법적 언어들로 이뤄진 김경주의 시 등은 다시 읽는 재미가 적지 않다.

〈문학과지성사·각권 8000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신간

▲책의 이면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의 ‘기획회의’에 연재됐던 글들을 엮었다. ‘책, 사람을 읽다’, ‘사람, 책을 읽다’로 나눠 24권의 책과 23명의 인물에 얹힌 에피소드를 전한다. 인물이 책을 이야기하는 가 하면, 책이 인물을 읽는 소재로 등장하면서 내밀한 상념의 흔적, 기억들을 담아냈다. <조광조와 군사목>, ‘허정란과 난설한시집’, ‘최부와 표해록’, ‘서유구와 임원경제지’ 등 다양한 책과 인물들의 이야기 뿐 아니라 당시 시대상황을 들여다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역사의아침·1만2000원〉

▲주저하는 근본주의자 = 파키스탄 출신 저자 모신 하미드가 포스트 9·11 세계의 삶을 다룬 소설로, ‘가디언’지의 ‘지난 10년간 최고의 작품’에 뽑혔다. 찬게즈라는 파키스탄 청년의 삶으로 제 3세계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흑백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불편한 진실을 담아내고 있다. 〈인물사·1만원〉

▲명장의 코드 = 미국 군사 리더십 전문가 에드거 피어어가 아이젠하워, 오마 브래들리, 존 케네디 등 역사의 물줄기를 뒤바꾼 명장들의 리더십을 분석해 엮었다. 사심없는 마음가짐, 결정을 내리면서 책임을 받아들이는 자세, 율바른 비판과 반대 의견 수용자세, 끊임없는 독서와 연구 등 성공적 리더십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꼽고 이러한 요소 모두에 포함된 ‘인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울·4만3000원〉



이라는 50권짜리 총서를 정리한 ‘갑잡이 책’, 51권짜 책을 번역했다. ‘하버드 고전’은 정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던 시절, ‘생계를 위해 8~9시간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초년에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다양한 고전의 지혜를 전하고자 마련한 전집이다. 〈유유·1만6000원〉

▲피와 뼈 그리고 버터 = 뉴욕 이스트빌리지 내 ‘프론트’의 오너인 스타 요리사 개브리엘 헤밀턴이 전하는 음식과 인생 이야기. 접시 닢이에서 시작, 스타 요리사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음식과 요리를 둘러싼 저자의 30년 이상의 부엌 이야기가 다양하고 생생하게 펼쳐진다. 요리 뿐 아니라 글쓰기도 공부했다는 저자의 글맛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돌출새김·1만5000원〉

▲너를 잊지 못할거야 = 21명의 작가들이 직접 겪은 반려 동물의 죽음과 이별에 대해 쓴 글을 한 데 모아냈다. 개, 고양이, 말, 돼지 등 다양한 동물들을 키워온 작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교감을 나누고 서로를 아끼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예고 없이 이별이 닥쳤을 때 어떻게 슬픔과 상실감을 극복하는지, 동물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도 알려준다. 〈오픈하우스·1만2800원〉

▲열린 인문학 강의 = 하버드대학이 100년 전 깊이 있는 인문 지식을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려는 취지로 기획한 강연 프로그램을 책으로 만들었다. ‘하버드 고전’(Harvard Classics)이라는 50권짜리 총서를 정리한 ‘갑잡이 책’, 51권짜 책을 번역했다. ‘하버드 고전’은 정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던 시절, ‘생계를 위해 8~9시간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초년에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다양한 고전의 지혜를 전하고자 마련한 전집이다. 〈유유·1만6000원〉



친절과 이타심은 무조건 좋은 행동?

‘냉혹한 친절’

바버라 오클리 지음



‘친절’과 ‘냉혹’이 서로 어울리긴 한 걸까.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듯한 두 단어를 합치면서 전하고자 한 의도는 비뚤어진 친절함이다.

바버라 오클리 미국 오클랜드대 교수가 쓴 ‘냉혹한 친절’은 친절함의 이면에 감춰진 위선과 뒤뜰린 애정을 폭로하는 등 도발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친절함, 남을 배려하는 이타심은 ‘무조건 좋은 행동’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책이기도 하다.

책은 지난 2006년 미국 유타 주에서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을 소재로 ‘잔혹한 친절’을 속속들이 파헤쳐나간다. 잔인하게 학대당하던 아내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살인 사건의 팩트라

면 저자는 사건 속 이면을 파고들 어간다.

예술가이면서 다섯 명의 자녀를 둔 46살 주부 캐럴 앨든이 남편을 죽이기까지를 깨달아 직접 쓴 편지, 경찰 기록, 자인 인터뷰 등을 토대로 파헤쳐낸다. 이 과정에서 뇌과학, 심리학, 범죄 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료를 찾아내 제시하며 인간이 지니고 있는 여러 겹의 심리 상태를 끄집어낸다. ‘동반 의혼’, ‘매맞는 여자 증후군’, 비만인 아들에게 간식거리를 안겨주는 ‘돌봄 강박증’, 능력이 없는데도 떠돌이 개를 무턱대고 데려다 키우는 ‘애니멀 홀딩’ 등 낯선 용어들도 어렵지 않게 풀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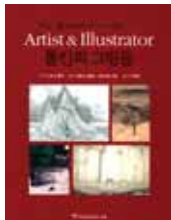
〈열대림·2만5000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반지의 제왕’ ‘호빗’... 톨킨의 그림 신화

‘톨킨의 그림들’

웨인 G. 해먼드·크리스티나 스킨 지음



‘반지의 제왕’, ‘호빗’. 이 두 소설은 J.R.R. 톨킨을 판타지 문학의 대부, 신화의 창조자로 불리게 했다. 톨킨의 두 소설은 영화로 만들어져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톨킨이 ‘호빗’을 출간한 뒤 ‘반지의 제왕’을 썼다면 영화는 반대로 ‘반지의 제왕’보다 늦게 ‘호빗’을 영화화 했다는 점이 다르다면 다른 점.

‘톨킨의 그림들’은 웨인 G. 해먼드, 크리스티나 스킨이 톨킨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림들을 한 데 모았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생을 마감하기까지 그려놓은 200편의 그림을 엮어내면서 작품과 연결지어 살펴보고 있다. 전문적 화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환상 세

계를 정밀하게 표현한 그림들이 적지 않다. 가로세로가 30cm가 되지 않는 종이에 스쳐가는 착상을 스케치로 남기거나 채색한 그림 실력도 수준급이다.

저자들은 톨킨이 그린 그림을 ‘자연에서 시작된 첫 그림들’, ‘종

이 위로 불러낸 환상’, ‘아이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처음 출판된 ‘호빗’ 그림들’ 등 4장으로 나누고 각각 시기별·주제별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다. ‘호빗’ 이야기가 시작되는 장면을 묘사한 ‘옛날 고요한 세계의 어느 이른 아침’ 그림이나 ‘호빗골’, ‘갈담프’를 그린 드로잉과 ‘반지의 제왕’을 쓰면서 작가가 미리 그렸던 지도, 설계도, 풍경화도 실려 작품의 창작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재미도 쏠쏠하다.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2만2000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맥주 한 잔에 담긴 철학적 수수께끼들

‘철학 한 잔’

매트 로렌스 지음



‘철학 한 잔’이라는 책은 48가지 철학적 물음을 같은 수의 맥주와 연결해 접근해 나간다. 술집에서는 누구냐 철학자가 된다고 하지 않은가. ‘술집의 장삼이사 철학자들, 결국 보통 사람들을 위한 철학 교양서’라는 출판사 측 설명이 거부감 없게 받아들여지는 건 이 때문이다.

매트 로렌스 캘리포니아 롱비치 시티칼리지 철학 교수는 “책의 기본 아이디어는 각종 철학적 난제들을 맥주 한 잔을 마시는 동안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이라고 썼다. 어떤 철학적 질문을 어떠한 맥주와 연결지었을까. 저자는 각 수수께끼 성격에 맞춰 맥주를 골라 짝을 지었다. 예를 들면 ‘제논의 역설’을 다룰 때는 서양 철학사에 가장 오래된 문제라는 점을 내세워 ‘바이엔슈

테판 오리지널 라거’와 짝을 지어 풀어냈다. 서구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회사에서 만든 맥주라는 게 이유였다.

철학적 수수께끼도 ‘인생사에 가장 커다란 문제’로 불릴만한 것들을 맥주와 연결지어 쉽게 풀어낸다. “500cc 맥주 한 잔이 숲 속에서 쏟아질 때 아무도 듣는 이가 없다면 그대도 소리가 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지각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 논쟁을 시작한다. 답은 뭘까. 저자는 “철학의 즐거움 가운데 반은 혼자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궁리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독자에게 생각할 밑마루 제공하는 것이다. 호기심 발동하는 독자들, 책을 찾을 법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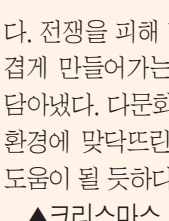
〈한겨레에듀·1만5000원〉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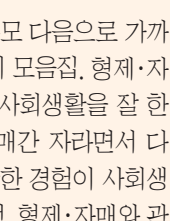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부모가 하루 15분만 시간을 내 책을 읽어 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아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16편의 동화에 각각의 마사지가 담겨 있다. 〈프리미엄박스·1만5000원〉

▲아이의 머니맨 여행 =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에 사는 여자 아이 아지의 눈으로 바라본 난민 생활의 두려움, 상실감, 희망을 만화 형식으로 그려냈다. 전쟁을 피해 낯선 곳에 정착, 용기를 내 힘겹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다문화 가정의 늘어나는 시기, 낯선 환경에 맞닥뜨린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다. 〈초록개구리·1만1000원〉



▲크리스마스 선인장 = 다른 선인장과 달리 성탄절 즈음에 꽃이 핀다고 해서 이름 붙은 ‘크리스마스 선인장’ 이야기다. 이름조차 알지 못한 채 최고 의로운 시간을 건디다 꽃을 피우는 크리스마스 선인장 얘기를 통해 ‘이름’을 얻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의미를 전한다. 〈상상의 힘·1만1000원〉



▲똥 보따리 우리 할매 = 1980년대 초등학교에서 이뤄졌던 채번 검사를 소재로 한 그림책. 할머니와 함께 사는 주인공 동준이는 채번 검사 날, 준비해온 ‘똥’을 잃어버린다. 선생님께 혼날 것 같아 잔뜩 겁을 먹은 동준이를 위해 할머니가 똥보따리를 짊어지고 학교를 찾는 과정이 유쾌하게 펼쳐진다. 〈한림출판사·1만1000원〉

▲닭은 똥 다르고 다른 똥 많은 형제자매 이야기 = 부모 다음으로 가까운 형제자매에 관한 옛 이야기 모음집. 형제·자매가 많은 사람은 성격 좋고 사회생활을 잘 한다는 말, 적지 않다. 형제·자매간 자리면서 다 두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사랑한 경험인 사회생활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것. 형제·자매와 관련된 옛 이야기를 통해 우에 있게 지내는 법을 자연스럽게 전한다. 〈미래아이·1만2000원〉

▲하루 15분 마사지도동화 = 베이비 마사지에서 유아 마사지로 넘어가는 시기, 3~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체 및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와 책 읽기를 한 데 모아 엮여냈다.